WEBVTT

00:00:09.523 --> 00:00:11.943
여러분, 안녕하세요?
김종회입니다.

00:00:12.066 --> 00:00:17.037
이번 시간에는 한 작가가 정말
공들여 쓴

00:00:17.062 --> 00:00:19.024
좋은 작품 한 편을 만나봅니다.

00:00:19.049 --> 00:00:22.285
이청준, 당신들의 천국입니다.

00:00:33.697 --> 00:00:40.466
이청준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
1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.

00:00:41.406 --> 00:00:50.109
이청준기념사업회가 설립이 되어서
이번에 고향인 전라남도 장흥에

00:00:50.134 --> 00:00:54.325
이청준문학관을 어떻게 세울까 하는
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

00:00:54.350 --> 00:00:58.737
저도 이청준기념사업회의 이사로
참여하고 있어서

00:00:58.878 --> 00:01:01.796
몇 번 장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.

00:01:04.022 --> 00:01:07.050
한국 문학에서 지식인 작가

00:01:07.075 --> 00:01:10.766
또는 지적인 작가라는
이름을 얻고 있는 이청준.

00:01:11.196 --> 00:01:15.396
그래서 이분의 소설은
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.

00:01:16.384 --> 00:01:22.195
아주 사색이 필요한 또는 전문적인
식견이 필요한

00:01:22.220 --> 00:01:24.706
이런 소재들을 다루기도 하고

00:01:25.217 --> 00:01:27.962
어떤 사회의 문제를 문학으로
표현하는 데 있어서도

00:01:27.987 --> 00:01:31.196
직접적으로 이야기로 드러내기보다는

00:01:31.221 --> 00:01:35.076
상징적이고 암시적인 장치들을
많이 사용합니다.

00:01:37.032 --> 00:01:43.846
또 작품 속에서 이야기를 통해서
질문하고

00:01:44.193 --> 00:01:52.277
그 답변을 독자들에게 맡겨 두는
열린 상태의 문학 구조를 보여주는

00:01:52.302 --> 00:01:54.198
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.

00:01:54.648 --> 00:01:58.848
대학을 다닐 때 제가 이번에
이어도라고 하는 중편을 읽었는데

00:01:58.873 --> 00:02:00.277
참 어려웠어요.

00:02:00.571 --> 00:02:04.392
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
그 이어도에 대한 이해가

00:02:04.417 --> 00:02:09.020
조금씩 달라지고 하는
이런 기묘한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.

00:02:10.401 --> 00:02:14.216
어쨌거나 우리 시대의 중요한 작가

00:02:14.515 --> 00:02:18.715
그리고 매우 수준 있는 작가가
이청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00:02:20.934 --> 00:02:25.134
70년대에 작품을 쓰기 시작했고

00:02:25.295 --> 00:02:29.742
그래서 1971년에 소문의 벽이라고
하는 작품

00:02:29.767 --> 00:02:35.065
또 1976년에 당신들의 천국이라고
하는 작품을 썼죠.

00:02:35.090 --> 00:02:38.977
이런 문제작들을 통해서
현실의 문제 가운데서

00:02:39.002 --> 00:02:41.857
단순히 문제를 발견하는 데
그치지 않고

00:02:41.882 --> 00:02:46.669
극복을 위한 싸움이라고 하는
차원으로 이것을 이끌고 갔는데

00:02:46.926 --> 00:02:51.126

이것이 외형적으로 드러난
투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.

00:02:51.151 --> 00:02:55.092
그렇다면 내면적인 사상의 문제,
철학의 문제

00:02:55.117 --> 00:03:00.049
이런 것을 가지고 치열한 토론을
유발하는 이런 방식의 작품이

00:03:00.074 --> 00:03:01.709
이분의 것입니다.

00:03:05.512 --> 00:03:09.249
이분이 서울대학 독문학과를 다녔죠.

00:03:09.274 --> 00:03:13.587
그래서 문단에 나온 것은 졸업 직전인
학생이던 때

00:03:13.612 --> 00:03:17.005
1965년 단편 퇴원이

00:03:17.347 --> 00:03:20.871
사상계라고 하는 당시 이름 있는
잡지였습니다.

00:03:20.896 --> 00:03:23.431
신인상에 당선을 했습니다.

00:03:24.637 --> 00:03:29.836
그 이듬해 단편 소설로 인부, 줄,
무서운 토요일, 굴레

00:03:29.861 --> 00:03:31.991
이런 작품들을 발표했고

00:03:34.944 --> 00:03:40.745
1967년에는 병신과 머저리

00:03:40.770 --> 00:03:44.139
이 작품으로 동인문학상을
받기도 했습니다.

00:03:44.687 --> 00:03:46.633
비슷한 시기에 등장한
작가들에 비해서

00:03:46.658 --> 00:03:51.607
정말 활발한 문학 활동을 보여주었고
쉬지 않고 작품을 씁니다.

00:03:52.669 --> 00:03:58.584
1971년에 그동안에 발표한
단편 20편 정도를 묶어서

00:03:58.609 --> 00:04:02.809
별을 보여드립니다라는 창작집을 냈고

00:04:02.909 --> 00:04:14.569

1972년에는 중편 소문의 벽,
쓰여지지 않은 자서전

00:04:14.594 --> 00:04:18.794
이런 작품들을 묶어서
소문의 벽이라고 하는 작품집을 내고

00:04:18.819 --> 00:04:23.739
1975년에는 중단편 18편을 묶어서

00:04:23.981 --> 00:04:27.195
가면의 꿈이라고 하는
창작집을 냈습니다.

00:04:27.783 --> 00:04:31.296
그 외에도 이분의 책은
너무도 많습니다.

00:04:31.321 --> 00:04:35.359
자서전들 쓰십시다, 예언자,
남도사람, 춤추는 사제,

00:04:35.384 --> 00:04:38.841
흐르지 않는 강, 살아 있는 늪
이런 작품들.

00:04:38.866 --> 00:04:42.913
그리고 영화로 만들어져서
우리가 잘 알고 있는

00:04:42.938 --> 00:04:47.094
서편제 같은 이런 창작집
또 조율사, 축제.

00:04:47.119 --> 00:04:48.876
축제도 영화로 만들어졌죠.

00:04:48.901 --> 00:04:51.754
이런 작품집들이 있습니다.

00:04:53.652 --> 00:04:57.530
겉으로 보기에 이청준 소설에서
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

00:04:57.555 --> 00:05:03.455
다양한 소재, 그러니까 이청준은
그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

00:05:03.480 --> 00:05:06.590
소설로 쓸 수 있는 작가다,
이런 평가가 있었죠.

00:05:06.853 --> 00:05:10.648
그리고 이분의 소설 가운데
특이한 것은

00:05:10.673 --> 00:05:17.271
격자 소설 또는 액자 소설이라고
부르는 그런 글쓰기 형식입니다.

00:05:18.147 --> 00:05:21.695

이야기가 하나 있으면,
소설의 이야기.

00:05:21.720 --> 00:05:24.510
그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
하나 있는 것.

00:05:24.535 --> 00:05:28.838
예를 들어서 김동리의 무녀도를
빌려 와서 얘기를 하자면

00:05:28.863 --> 00:05:35.070
무녀도의 나귀에다가 낭이라고 하는
처녀를 태워서

00:05:35.779 --> 00:05:38.885
어떤 집 사랑채에 머무는
과객이 있습니다.

00:05:38.910 --> 00:05:41.778
그런데 거기에서 들려주는 이야기가
그 내부의 이야기죠.

00:05:41.803 --> 00:05:46.003
이런 걸 액자 소설이라고 하고
격자 소설이라고 합니다.

00:05:47.064 --> 00:05:50.191
그래서 다양한 주제를

00:05:50.313 --> 00:05:57.092
또 매우 새로운 방식의 이야기 그릇에
담아내는 그런 작가.

00:05:57.382 --> 00:06:04.344
그래서 이분의 작품 세계는 소재가
우리에게 익숙한 것이라 할지라도

00:06:04.369 --> 00:06:09.900
우리가 낯이 익은,
익숙하게 마주칠 수 있는

00:06:09.925 --> 00:06:12.389
이런 방식의 이야기가 아니라

00:06:12.614 --> 00:06:18.246
어떤 면에 있어서는 신문 사회면에서나
볼 수 있는 불합리한 뒤틀림

00:06:18.271 --> 00:06:20.094
이런 세계에 관한 이야기

00:06:20.119 --> 00:06:25.220
또 우리가 잊어버린,
잊혀진 이야기

00:06:25.245 --> 00:06:30.929
이런 것들이 새로운 모습으로
소설을 이루고 있습니다.

00:06:31.726 --> 00:06:36.971

그래서 그의 소설에서는
한 인물이 자신의 사고 질서에 의해서

00:06:36.996 --> 00:06:41.196
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
살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

00:06:41.221 --> 00:06:46.730
항상 뭔가 관찰당하고 억압을 받고

00:06:47.175 --> 00:06:52.842
그리고 그와 같은 결과가
종합됨으로써 존재하는 인간 존재.

00:06:53.223 --> 00:06:56.146
그러니까 작가는 한 인물에게
합당하고

00:06:56.828 --> 00:06:59.933
객관적인 의식 체계를 부여하지 않고

00:06:59.958 --> 00:07:03.760
그 인물을 둘러싼 관찰이나
보고 같은 것을 종합해서

00:07:04.823 --> 00:07:07.358
그가 어떤 억압 속에 있었는가,

00:07:07.383 --> 00:07:12.337
어떤 심리적 압박 속에
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

00:07:12.797 --> 00:07:13.538
그런 작가입니다.

00:07:13.582 --> 00:07:17.782
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지적인
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.

00:07:18.876 --> 00:07:21.015
당신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소설

00:07:21.040 --> 00:07:26.272
이것은 어떤 유토피아 지향의
문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

00:07:26.297 --> 00:07:30.497
왜 당신들의 천국일까요?
왜 우리의 천국이 아닐까요?

00:07:30.522 --> 00:07:34.904
그 천국은 이를테면 우리가
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

00:07:35.137 --> 00:07:39.850
당신들만의 천국이지 않느냐 하는
소외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

00:07:40.286 --> 00:07:45.170
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는
소록도 나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

00:07:45.195 --> 00:07:48.268
그 나환자들, 당신들, 거기에 있는.

00:07:48.573 --> 00:07:52.967
다른 환경 조건에 있는 당신들이
추구하는 천국이 어떤 것이였느냐?

00:07:52.992 --> 00:07:54.885
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.

00:07:55.161 --> 00:07:58.772
물론 작가는 이런 문제에 대한
질문이 제기되었을 때

00:07:58.797 --> 00:08:03.586
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
해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00:08:04.267 --> 00:08:10.207
소록도에 조백헌이라고 하는
현역 대령이 원장으로 취임합니다.

00:08:10.232 --> 00:08:13.441
그래서 나환자들에게 희망을
불러일으켜주고

00:08:13.466 --> 00:08:16.846
새로운 것을 해 보자고 하는,
천국을 만들어보자.

00:08:16.871 --> 00:08:21.139
득량만이라고 하는 매몰 공사에
착수해서 땅을 만들어보자.

00:08:21.544 --> 00:08:24.016
이런 매립 공사를 시작하는데

00:08:24.252 --> 00:08:26.228
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

00:08:26.253 --> 00:08:29.608
또 나환자들이 겉으로는
순종하는 척해도

00:08:29.633 --> 00:08:33.282
얼마나 이 조원장을 배척하고 있는가,
이런 이야기입니다.

00:08:33.424 --> 00:08:34.808
왜 그럴까요?

00:08:34.833 --> 00:08:42.166
그 이전의 병원장이
자신의 동상을 세우는,

00:08:42.191 --> 00:08:44.132
그러니까 나환자들을 동원해서

00:08:44.157 --> 00:08:47.062
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

보았기 때문에

00:08:47.087 --> 00:08:51.619
이 사람들이 또 저 사람이
자기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

00:08:51.644 --> 00:08:53.350
생각을 하는 거죠.

00:08:53.583 --> 00:08:56.845
실제에 있어서 조백헌 원장은
그런 사람이 아닙니다.

00:08:56.870 --> 00:09:03.255
3부에서는 이 원장이 섬을 떠났다가
5년이 지난 다음에

00:09:03.280 --> 00:09:07.019
한 사람의 자연인, 시민으로
소록도를 찾아와서

00:09:08.405 --> 00:09:14.393
미감아 두 사람의 결혼식 주례를
맡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.

00:09:15.254 --> 00:09:20.268
그래서 당신들의 천국에서
가장 중심적인 인물은 말할 것 없이

00:09:20.293 --> 00:09:22.555
이 조백헌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고

00:09:22.580 --> 00:09:26.603
그다음에 거기에 일하고 있는
이상욱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

00:09:26.628 --> 00:09:34.756
거기에 살고 있는 원생 대표로 장로로
황희백이라고 하는 노인이 있습니다.

00:09:35.402 --> 00:09:41.452
조백헌 원장은 소록도라고 하는
미지의 땅에 들어온 이방인이었지만

00:09:41.604 --> 00:09:45.706
소록도를 버리려고 하는
또 남을 믿지 않고

00:09:45.731 --> 00:09:48.841
불신과 좌절 속에서 일생을 살아가는

00:09:51.084 --> 00:09:54.024
소록도 주민들의 현실을
좌시할 수 없어서

00:09:54.049 --> 00:09:57.250
그들의 낙원을 만들어주려고 하는
꿈을 가집니다.

00:09:57.275 --> 00:10:01.218
그렇지만 그걸 이 원생들은

믿지를 않습니다.

00:10:01.243 --> 00:10:06.579
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꿈으로
끝나는 일이 아니라

00:10:06.955 --> 00:10:09.551
집념과 투지 그리고 실천

00:10:09.576 --> 00:10:12.578
이런 것을 통해서
현실적인 이야기가 되는데

00:10:12.603 --> 00:10:18.100
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
인간사의 문제들

00:10:18.515 --> 00:10:25.717
이것은 단순히 원장과 환자의 관계가
아니라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.

00:10:25.742 --> 00:10:29.773
지배자와 피지배자,
치자와 피치자의 관계.

00:10:30.064 --> 00:10:34.690
이런 구조적 도식을
보여주게 됩니다.

00:10:35.134 --> 00:10:36.956
그러니까 이 치자와 피치자,

00:10:36.981 --> 00:10:40.510
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
관계라고 하는 것은

00:10:40.535 --> 00:10:44.553
국가 형태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
사회 조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

00:10:44.578 --> 00:10:49.303
이것이 소록도에서도 마찬가지로
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

00:10:50.563 --> 00:10:55.254
조원장의 취임과 더불어서
섬은 서서히 변화를 맞게 됩니다.

00:10:55.279 --> 00:11:01.116
축구 경기를 보고 옆에서 환자들의
의욕과 용기를 불러일으킨 조원장이

00:11:01.598 --> 00:11:04.823
간척 사업을 통해서
어떤 비전을 제시합니다.

00:11:05.152 --> 00:11:09.612
그러나 피치자인 민중은
겉으로는 따라가지만

00:11:09.637 --> 00:11:12.300

마음으로부터 그를
따르지는 않습니다.

00:11:12.325 --> 00:11:17.945
치자의 이익 또 피치자의 이익이
일치될 때는 거부감이 없어 보이지만

00:11:19.526 --> 00:11:25.233
이들은 항상 치자에 대한 불신을
가슴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.

00:11:25.944 --> 00:11:28.710
왜냐하면 그와 같은 일들을
이미 겪었기 때문에

00:11:28.735 --> 00:11:33.304
주정수라고 하는 처음 왔던 원장이

00:11:33.860 --> 00:11:39.640
많은 소록도 원생들에게
핍박과 굴욕을 강요했고

00:11:39.751 --> 00:11:46.713
노력과 수고라고 하는 것이
그 원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

00:11:46.738 --> 00:11:50.938
주정수 원장 자신을
위한 것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을

00:11:50.963 --> 00:11:53.126
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죠.

00:11:53.694 --> 00:11:57.900
그렇게 본다면 치자와 피치자 사이의
화합이라고 하는 것이

00:11:57.925 --> 00:12:00.065
아주 어려운 일인데

00:12:00.693 --> 00:12:04.441
조원장이 그 현장에 있는 동안에는
이것을 다 풀어내지 못합니다.

00:12:04.466 --> 00:12:09.254
그래서 결국 소록도를 떠나고
나중에 5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

00:12:10.346 --> 00:12:16.797
개인의 신분으로 이들의 곁에
있다고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

00:12:16.822 --> 00:12:23.679
말하자면 이들 사이의
그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것은

00:12:24.571 --> 00:12:28.771
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문제,
이런 거죠.

00:12:30.892 --> 00:12:33.421

조원장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이라고
하는 것은

00:12:33.446 --> 00:12:36.520
원생들에게 쉽게 납득될 수 있는 것은
아니었지만

00:12:36.545 --> 00:12:39.397
그것은 오랜 세월의 경과를 통해서

00:12:39.422 --> 00:12:44.622
그리고 실제적인 그의 삶의
행동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이고

00:12:44.672 --> 00:12:46.834
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렀지만

00:12:46.859 --> 00:12:54.341
나중에는 그 사랑이 실천 가능성을
보여주고 납득이 되는

00:12:54.483 --> 00:12:59.053
그래서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하는
한 편의 장편 소설이

00:12:59.078 --> 00:13:05.868
말하자면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
현장에 있어서 거리를 좁히고

00:13:06.246 --> 00:13:09.453
또 나누어져 있던 마음을 합치고 하는

00:13:09.478 --> 00:13:13.256
하나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,
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

00:13:13.281 --> 00:13:15.906
여러분, 당신들의 천국.

00:13:15.931 --> 00:13:18.400
제목도 좀 기가 막히지 않아요?

00:13:18.444 --> 00:13:19.744
한번 읽어보시죠.

00:13:19.769 --> 00:13:25.644
이 작품을 한번 읽어봄으로써
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

00:13:26.542 --> 00:13:32.962
힘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
또는 인도하는 자와 따라가야 하는 자

00:13:33.645 --> 00:13:40.310
이런 인간 관계의 미묘하고도
절실한 그런 문제에

00:13:40.335 --> 00:13:45.089
한발 더 가까이
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